

최근 도내 아파트 분양가 감소

8월 기준 192만9,000원... 분양세대 늘고 대형면적 상승폭 커

전북지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m²당 평균 분양가격은 8월 현재 기준 192만9,000원으로 전년동월 199만1,000원 대비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8월 말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지난해 말(198만3,000원)부터 분양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월 192만9,000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북지역은 강원도와 함께 유일하게 전년동월대비 분양 가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격이 줄어든 이유는 신규 분양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8월말 기준 신규 분양 세대수는 1,168세대로 전년말 432세대와 전년 동월 33세대 대비 분양세대가 확연히 늘었다.

규모별로는 대형 면적의 상승 폭이 컸다.

전용면적 102m² 초과된 아파트는 232만3,000원으로 전년동월 21만8,000원 대비 20만5,000원이 올랐다.

반면 85m² 초과 102m² 이하 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분양가격이 감소했다

8월현재 229만1천원대에 반해 전년동월은 240만5,000원으로 11만5,000원이 줄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방 아파트 중 전북이 유일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m² 초과 85m² 이하 규모의 아파트(2015.8 199만4,000원-2016. 8 199만 6,000원)와 60m² 이하(2015.8 195만 4,000원-2016. 8 192만9,000원)도 각각 분양가격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 물량 증가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 입주예정 물량에 대한 분양가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광영 기자



새로운 트렌치코트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듀얼 매장에서 모델이 루즈&라이트 스타일의 트렌치코트 상품을 보고 있다.

가품대책 상황실 운영 나서

농어촌공 전주완주임실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김창호)은 재난안전(가품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이어진 가품장기화로 인해 관내 87개 저수지의 저수량이 가품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을 우려해서다.

실제로 지난8일 현재 전주지역 누적강우량은 862.7mm (평년 1,139.6mm)로 평년대비75% 수준에 머물러 관내 87개저수지 저수

율이 40.6%로 평년대비 66.6%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지난 16~18일 사이 전주지역에 141mm의 비가 내려 저수율이 일부 상승, 올해 가품은 해소 됐지만 내년 영농대비를 위한 저수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제한급수와 간이양수장 및 관정 등 한해대책 시설물을 적극 운영해 필요 용수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추석 전후 어린이 완구 판매 특수 노려라”

전년동기대비 51% 매출증가

바이어로 VIP가 아닌 VIB의 시대다. VIB는 'Very Important Baby'를 뜻한다. VIP 고객만큼이나 매출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어린이 고객을 뜻하며 최근 키즈산업군의 성장과 관련해 사회학 트렌드를 반영해 태어난 신조어다.

키즈 산업은 확산 속도나 파급 양상에 있어 다른 어떤 산업보다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상품 이용자는 아이들이지만 실제 구매층에는 아이의 부모는 물론 친척들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빚대어 '에잇포켓'(8개의 지갑)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최소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삼촌 등 총 8명의 친척이 지갑을 연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 완구를 가장

많이 구매할까. 완구 구매율은 통상적으로 추석 전후,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시즌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의 경우 설날과 달리 새뱃돈을 주는 풍습이 없기 때문에 친척들이 손주와 자녀, 조카에게 주려는 선물 수요가 몰린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다양한 완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추석 명절 이후 완구 판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이 끝난 9월30일부터 10월13일까지 2주동안 완구 전체 판매율을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했다.

이중 국내브랜드 완구는 148% 매출이 올랐고 스포츠 완구는 43%, 신생아·영유아완구는 81%, 자연과학완구는 51%, 작동완구는 41% 판매율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육선에서도 로보완구 32%, 브랜드완구 254%, 블럭 64%, 스포츠완구 52%, 신생아·영유아완구 79%, 프라모델·피규어 99%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11번가에서도 전체 완구 판매율은 추석 직후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완구 판매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승용완구와 캐릭터 완구는 각각 171%, 31%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요를 잡기 위해 유통업계에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고객층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SK플래닛 11번가 김지민 강남점 담당 MD는 "올 추석시즌에는 선선한 가을날씨 영향에 지난해보다 승용완구 매출이 급증했다"며 "10월 중순까지는 승용완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스타항공, 내달 1일부터 기내식 신메뉴 선보여

콜드델리카시·새우샐러드치아바타샌드위치 등 6종

이스타항공이 10월 1일부터 기내식 신메뉴를 선보인다.

이스타항공은 기존에는 불고기덮밥, 닭볶음탕밥, 차진나gett볶음, 연어베이글샌드위치, 스톱코치킨샐러드, 단호박샌드위치 등 6가지 기내식을 운영했다.

이번 추가 신메뉴 도입으로 기내식 다양화를 통해 고객들의 항공여행에 짜릿함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기내식 새메뉴는 콜드델리카시, 새우샐러드치아바타샌드위치, 아메리칸부르스트

브랜드샌드위치, 쇠고기타타카샐러드, 유부초밥스프링롤, 웰빙샐러드 등 6종 류이며 사전 메뉴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했다.

기내식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istarair.com) 및 예약센터(1588-080)에서 사전 주문을 통해 국제선 전 노선에서 이용가능하다.

또 해외까지 업그레이드 시, 운임에 지정좌석 및 기내식 요금이 포함돼 있어 추가 결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광영 기자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편 이후 사전 기내식 주문이 편리해져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신메뉴 추가 도입으로 고객들의 기내식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기내식 개발을 통해 메뉴를 다변화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기내식 외에도 이스타샵(EASTAR SHOP) 기내 유품판매 상품 운영으로 즉석식품, 음료 및 스낵 등 다양한 먹거리도 판매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꿈길 속 거금대교' 대상 수상

익산국토청, 아름다운 해상교량 사진 공모전에서

익산국토청이 실시한 아름다운 해상교량 사진 공모전에서 '꿈길 속 거금대교'가 대상을 차지했다.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406점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9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흥분도와 주제부합성, 작품성, 참신성 등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신 모씨의 '꿈길 속 거금대교'가 차지했다.

또 최우수상은 박 모씨가 출품한 '울돌목 명랑대교'가, 우수상은 신 모씨의 '다시찾은 고군산대교' 등 3명이 차지했으며, 이 밖에 장려상 5점과 가작 19점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신광영 기자

수상작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cmamdit.g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국토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 해상교량 기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익산국토청 박국준 해상교량 안전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해상교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 아름답고 더 안전한 해상교량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멋진 해상교량 경관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혁신형기술 창업양성프로젝트' 교육 실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청년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혁신형기술창업양성프로젝트'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창업 교육과정'은 창업의욕은 높으나 정보가 부족한 예비 창업자에게 종합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으로 창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교육과정은 창업철차, 창업자마인드, 기초세무, 홍보마케팅, 비즈니스 모델링 등 창업 필수요소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담 1:1 멘토제를 도입하여, 교육생과의 밀착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부실창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 후에도 전문가와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종료 후에는 수료생의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3천만원의 창업자금(창업 후 1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후지원책을 제공한다.

만20세~39세 이하면 신청가능하고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이달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3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창업교육 신청방법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a.kr)이나 전화문의(063-711-205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광영 기자

웨딩페어 최대 30% 할인 행사

이마트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웨딩 페어' 행사를 열고 혼수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침장, 가구 등 생활용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로렌데코, 브룸, 캄미어 퍼, 세라피 등 침구 브랜드와 데코라인 가구 등 웨딩페어 행사상품을 30/50/70/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10/15/20/30%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가 이번 행사를 준비한 것은 웨딩 시즌 침장, 가구 등 생활관련 상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웨딩 시즌인 4~5월, 9~10월 이마트 매출을 살펴보면, 작년 4~5월간 관련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3%, 9~10월은 2.9% 늘었으며, 올해 4~5월 역시 전년 동기대비 4.3% 매출이 늘었다.

이는 불박이집이나 침대 등 대형 가구가 기존 주거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등 주거공간 트렌드의 변화로 침구나 소규모 가구 등 소품을 위주로 집안을 꾸미고자 하는 '홈나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